

119억 투입 2호선 공사 피해 소상공인 전방위 지원

광주시, 상권회복 종합대책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현장 확인' 행사에서 "그동안 힘드셨을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5가지 지원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28개 행정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2만6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상생카드 환급, 소비 촉진, 자금 지원, 경영부담 완화, 매출 회복 등 5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다.

광주시는 내년 1~2월 '상생카드 특별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대상 지역 내 가맹점

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를 더해 총 2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64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23개 동 2만6천여곳 대상

상생카드 20% 환급·특례보증 추진

소비진작·자금지원·매출 회복 주력

소비 촉진을 위해 도로 개방 당일인 이날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공사 구간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차자구와 관계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해 공사 구간 인근 상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종식을 휴무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지역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무는 그동안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 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월 2회

종식 휴무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총 보증 규모는 500억원이다.

1천700개 사를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5천만원 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1년 간 3~4%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현장 확인 행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상권 회복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원 인턴기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명 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하며 업체 당 1~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다.

아울러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회복 상담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총 45개 사를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을 지원하는 종합 상담(최대 4회)과 세무·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상담(최대 2회)을 병행한다. 총 2천400만원의 서비스가 투입된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책"이라며 "소비 진작부터 자금, 고용, 경영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기층포장' 개방 구간 5.9km...안전 문제 없나

2공구 소구간 등 36% '표층포장' 안돼
지반 안정화 이유...1개월 이내 마무리
시 "도로기능 이상無...주행 품질 차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가 전면 개방됐지만 개방 구간의 36%(5.9km)가 '기층포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연장 17km 중 금호지구·백운광장 일원 등 일부 정거장 구간 687m를 제외한 16.3km 구간도로가 전면 개방됐다.

이 중 '표층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10.4km(64%)이며 '기층포장' 상태로 개방된 구간은 5.9km(36%)에 달한다.

공구별로 보면 기층포장 개방 구간은 2공구 전 구간인 27km, 3공구 2.9km 중 1km, 4공구 2.1km 중 900m, 6공구 3.1km 중 1.3km다.

전체 개방 구간의 3분의 1 이상이 최종 마감 공

정인 표층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기층포장은 도로 굴착 후 쇄석 기반의 아스콘을 깔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도로의 빠른 역할을 한다.

표층의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도로를 평탄화하는 표층포장 이전 단계인 만큼 표면이 거칠고 미관이나 주행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다.

표층포장은 기층 위에 아스콘을 평坦하게 다짐해 최종 도로 표면을 완성하는 단계로 주행성, 승차감, 소음 등을 좌우한다.

광주시는 일부 구간을 기층포장 상태로 개방한 이유에 대해 지반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층포장으로 개방하더라도 도로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주행 품질'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또한 공구별로 주변 지반 상태와 되메움 높이가 달라 안정화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 안정화 기간은 통상 2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나 연약지반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도로 지반이 좋지 않은 경우 기층포장 상태로 일정 기간을 두고 안정화한 뒤 표층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규정에 따라 다짐·포장을 하더라도 단기간 교통 하중이 가해지면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새만금 고속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기층포장으로 놔둔 뒤 표층포장을 한 바 있다"며 "안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표층포장을 하면 결국 다시 걷어야 하는 부실 공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층포장 구간의 경우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기상 상황을 전제로 1개월 이내에 표층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표층포장 과정에서도 한 차선 정도만 통제되고 하루가 채 안 걸리는 만큼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전남도-산업은행 '협력체계 구축' 협약

역으로 분산시키는 균형발전 우수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가 산업을 이끄는 전남 성장모델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선정

전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천시·구례군·완도군·장성군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 3종인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양시원기자

알고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